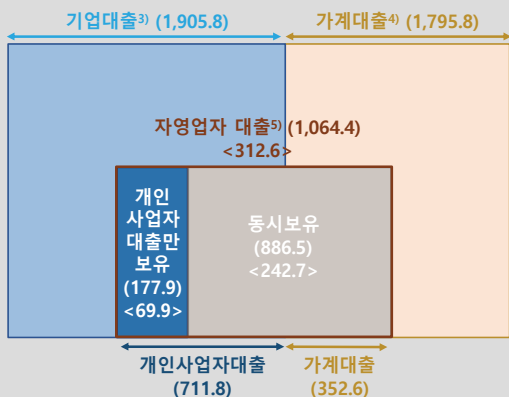


참고 1.

최근 자영업자 대출의 차주 특성 및 연체율 분석¹⁾

최근 자영업자 대출²⁾은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연체율은 고간의 금융긴축 지속 및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취약차주³⁾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가계부채DB 등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자의 대출 동향을 살펴본 후, 자영업자의 차주 특성과 연체율 특징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참고 1-1).

참고 1-1. 자영업자 대출¹⁾ 현황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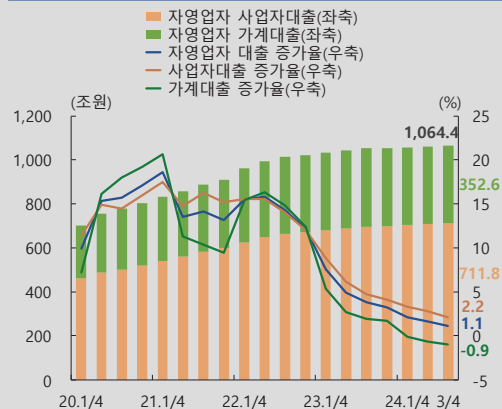
주: 1) 개인사업자대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산한 대출
 2) 24년 3/4분기말 기준, (< >는 대출잔액(조원), < >는 차주 수(만명)
 3)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합산 기준
 4) 가계신용통계 가계대출(판매신용 제외) 기준
 5) 가계부채DB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가계신용통계),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자영업자 대출 동향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 둔화 지속

2024년 3/4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4.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 둔화⁴⁾가 지속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중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711.8조원 및 352.6조원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은 증가세(2.2%)가 둔화되고 가계대출은 감소세(-0.9%)가 확대되었다(참고 1-2).

참고 1-2. 자영업자 대출 추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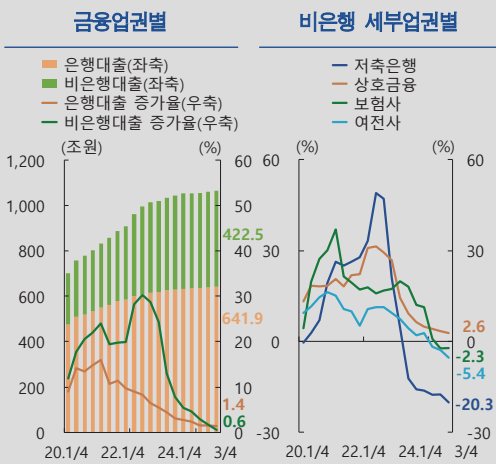
주: 1) 잔액은 기말 기준,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자영업자 대출 금액을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에서 641.9조원, 비은행권에서 422.5조원⁵⁾으로 집계되었으며, 두 업권 모두 대출 증가세가 둔화(각각 1.4%, 0.6%)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 세부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대출이 전

1) 본고는 편도훈·이연재(안정분석팀)가 작성, 서평석(금융안정기획부장)·김정호(안정분석팀장)가 검토하였다.
 2) 한국은행은 가계부채DB(약 100만 차주로 구성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산하여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3) 다중채무자(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자영업자 차주를 취약차주로 분류하였다.
 4)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22년 4/4분기 12.2% → 23년 4/4분기 3.3% → 24년 3/4분기 1.1%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 : 22년 4/4분기 12.0% → 23년 4/4분기 4.1% → 24년 3/4분기 2.2%
 자영업자 가계대출 증가율 : 22년 4/4분기 12.4% → 23년 4/4분기 1.7% → 24년 3/4분기 -0.9%

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저축은행에서는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참고 1-3).

참고 1-3. 금융업권별 자영업자 대출 추이¹⁾



주: 1) 잔액은 기말 기준,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한국은행 사신(가계부채DB)

자영업자 차주 특성별 분석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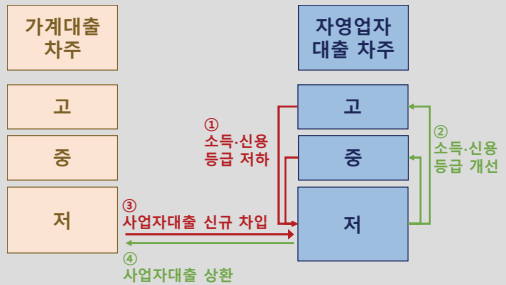
자영업자 차주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2024년 3/4분 기말 현재 고소득 및 고신용 차주는 각각 146.7만 명, 217.6만명으로 자영업자 차주의 46.9%, 69.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 및 저신용 자영업자 차주는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15.8%, 7.4%에 해당하는 49.4만명, 23.2만명이나, 2024년 들어 이들 차주가 각각 1.5만명, 3.2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1-4).

참고 1-4. 차주 특성별 자영업자 차주 수¹⁾

		특성별 자영업자 차주 (만명, %, %p)			
		23년말	24년 3/4분기	증감	
전체		313.1	312.6	-0.6	
소득 수준 ²⁾	고	146.1 (46.7)	146.7 (46.9)	+0.6	(+0.3)
	중	119.1 (38.0)	116.5 (37.3)	-2.6	(-0.8)
	저	47.9 (15.3)	49.4 (15.8)	+1.5	(+0.5)
신용 등급 ³⁾	고	217.8 (69.6)	217.6 (69.6)	-0.3	(+0.0)
	중	75.3 (24.1)	71.8 (23.0)	-3.5	(-1.1)
	저	19.9 (6.4)	23.2 (7.4)	+3.2	(+1.0)

주: 1) ()는 각 소득수준 및 신용등급별 차주 수 비중을 의미
2) 연도별 가계소득 상위 30%, 30-70%, 하위 30%를 각각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으로 분류
3) 신용점수(NICE신용정보 신용점수 기준)가 840점 이상, 665-839점, 664점 이하를 각각 고신용, 중신용, 저신용으로 분류
자료: 한국은행 사신(가계부채DB)

참고 1-5. 저소득 및 저신용 자영업자 차주 증가 유형¹⁾



주: 1) 붉은색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가 증가하는 경로를, 초록색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가 감소하는 경로를 의미

최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 증감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존 저소득·저신용 가계대출 차주가 사업자대출을 신규 차입하면서 자영업자 차주로 진입한 경우(유형③ - 유형④)는 감소(순증가 기준, 저소득 -0.8만명, 저신용 -2.4만명)한 반면, 중소득·중신용 이상 자영업자 차주들이 저소득(하위 30%) 및 저신용으로 하락한 경우(유형① -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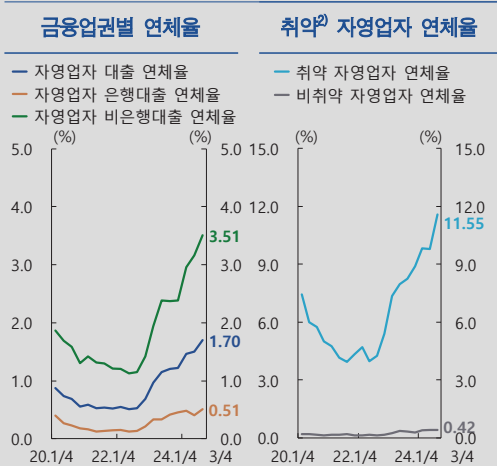
- 비은행 세부업권별로는 상호금융(326.2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25.5조원), 저축은행(20.2조원), 보험사(16.5조원) 순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크게 나타났다.
- 소득 및 신용 등급별 자영업자 차주의 시점별 증감은 지속 자영업자 차주의 등급 간 이동(① 여타 등급에서 해당 등급으로 진입 - ② 해당 등급에서 여타 등급으로 이탈)과 해당 등급 차주의 사업자대출 신규 차입 및 상환에 따른 자영업자 차주 증감(③ 기존 해당 등급 가계 차주의 사업자대출 신규 차입 - ④ 해당 등급 자영업자 차주의 사업자대출 상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저소득 가계대출 차주 중 3.3만명이 사업자대출을 신규 차입하면서 저소득 자영업자 차주로 편입되었으나, 기존 저소득 자영업자 차주 중 4.1만명은 사업자대출을 상환하여 자영업자 차주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저신용 가계차주 중 신규로 사업자대출을 차입한 경우는 0.6만명에 불과하였으나, 저신용 차주 중 사업자대출을 상환하여 자영업자 차주에서 제외된 경우는 3.0만명이었다.

형②)는 크게 증가(각각 +2.3만명, +5.6만명)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1-5). 즉, 최근의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 증가는 이들 차주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규 사업자대출 공급 확대가 아니라, 기존 자영업 차주들의 전반적인 소득 및 신용도 저하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체율은 취약 자영업자 중심으로 높은 수준 지속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4년 3/4분기말 1.70%로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비은행권 및 취약 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업권별로는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3.51%)이 큰 폭 상승하여 은행권 대출 연체율(0.51%)을 상당폭 상회하였다. 한편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55%로, 비취약 자영업자(0.42%)와 큰 격차를 보였다(참고 1-6).

참고 1-6. 자영업자 대출 연체 현황¹⁾



주: 1)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2)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평가 및 시사점

최근 자영업자 대출은 증가세가 과거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연체율은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증가⁸⁾하고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고소득·고신용 우량 차주들이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부분을 보유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향후 자영업자 차주의 채무상환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가 증가한 점에 유의하여 자영업자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와 금융당국은 높은 이자부담으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이어가는 가운데, 회생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금융여건 하에서 부채에 의존하여 사업을 지속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교육 등 재기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¹⁰⁾

8) 2024년 3/4분기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수는 41.8만명(자영업자 차주의 13.4%)이며, 이들이 보유한 대출은 122.6조원(자영업자 대출의 11.5%)으로 전년말 대비 각각 2.2만명 및 6.8조원(각각 +0.7%포인트, +0.5%포인트) 증가하였다.

9) 2024년 3/4분기말 기준 고소득 및 고신용 자영업자 차주가 보유한 대출은 각각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69.2%, 78.8%를 차지한다.

10) 정부는 지난 7월 3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성장 촉진, 재기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다.